근기요산회 정기총회 및 산행
서울 도봉산에서, 일부 임원도 개선

▲ 근기요산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가 5월 16일 토요일에 월례산행을 겸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창립 4주년의 정기총회였다. 오전 10시에 전철 도봉산역에서 5백여 미터 떨어진 도봉산 대등산로 입구의 '만남의 광장'에 30여명 회원이 속속 집결하였다. 전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매우 많은 양으로 오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산행을 하기가 어려워 도봉사道峰寺까지 올라가 명찰 경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등반 행사를 접고 하산하여 정오경에 종족宗族 권오현權五玄씨가 경영하는 요산회의 단골 식당 '산두부집'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필자가 총무로서 제4기 1년의 결산보고를 하여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임원을 일부 개선하였다. 권영익權寧翼 회장이 작년 정기총회에서 창립후 3년 임기를 채웠으므로 물러나고자 했다가 1년을 더 연임했던 것을 상기하며 재차 사의를 표했으나 만장일치로 이를 수리치 아니하여 유임되었다. 그러나 부회장 가운데 권해조權海兆·권재종權在琮 양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어 전 과기부 차관 권오갑權五甲·화산부원군파종회 부회장 권정택權貞澤·권혁채權赫彩씨가 새로이 부회장으로 보선되었다. 안건 처리를 마치고는 지난달에 결의하였던 안동권씨 아시조 낭중공의 청도 유적과 단소를 수호하는 데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도봉산은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아름답다. 주능선상에는 최고봉인 자운봉紫雲峰을 비롯 만장봉萬丈峰·선인봉仙人峰·주봉柱峰 등의 암봉과 서쪽으로 다섯 개의 암봉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오봉五峰이 있다. 선인봉·만장봉·주봉·우이암牛耳岩은 각기 거대한 암벽이다. 도봉산은 우람한 기암괴석과 뾰족이 솟은 암봉들이 장관을 이루며 사방으로 뻗은 계곡을 따라 녹음이 우거져 명소를 만들고 있다. 사계절 모두 즐겨 찾는 산이지만 가을이면 단풍의 물결이 어느 산 못지않다.

도봉산의 3대 계곡은 문사동계곡·망월사계곡(원도봉계곡)·보문사계곡(무수골)이다. 이 계곡들이 바로 산행 기점과 연결되고 있다. 도봉산은 등산코스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도봉동 도봉산역·망월사역·우이동 코스가 대표적이다. 도패능선道牌陵線은 동에서 서쪽으로 완만히 오르는 일방코스이다. 따라서 다락능선이나 포대능선에서 정상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야 한다.

<사진 權奇允 · 글 權炳逸>

▲ 유임된 권영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3면에서 계속

和縣 남쪽에 있던 지명) 사람인데 형제가 몸소 심고 거두는데 힘써 양친을 봉양하였다. 모친이 사망하자 장기杖朞(상례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으면 상장을 짚고 생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만1년 동안 거상하는 것)를 마친 이후에도 주야로 일어나 호곡하였다. 다시 아버지를 여의게 되자 애통하여 훼척毁瘠해지는 것이 예도에 지나쳤다. 그해 여름에 폭풍과 우박이 몰아쳐 초목이 부러져 뽑혔는데 사나운 풍우가 왕숭의 밭 언저리에 이르러서는 문득 그쳤다.

복상服喪을 마치고도 그대로 묘소 곁에 살며 시묘侍墓를 하였는데 겨울에 새가 왕숭의 본집 지붕에 둥지를 틀더니 숭의 어린 두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르며 길들어 떠나지를 않고 함께 살았다. 이를 듣고 지방의 수령守令이 몸소 와서 보고는 사실을 조정에 상주하여 그 마을에 정려旌閭가 내리게 하였다.

건옹궁가乾邕躬稼 : 건옹이 몸소 농사지어

양부모차養父母且 : 어버이를 봉양하는데

정우과례丁憂過禮 : 친상을 당해서는 예도에도 벗어나고

제복거려除服居廬 : 복을 벗고도 여막에서 살았네

조유어동鳥乳於冬 : 겨울에는 새가 아이를 젖먹이고

박불상곡雹不傷穀 : 우박도 곡식을 다치지 않으니

수령정문守令旌門 : 수령이 정려문을 세우고

세앙유촉世仰遺B : 세상은 그 유적을 우러러보았네

건옹이 몸소 농사지어 그 부모를 봉양하고 애훼哀毁함으로 그 어버이를 위한 거상居喪을 하면서 살아서 섬기고 죽어서 장사지냄에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그리하여 상복을 벗기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여막廬幕 곁에 살았는데 여름에 바람과 우박이 몰아쳐도 그의 전답에서는 그치고 겨울에는 새가 있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 집에서 길들어 사니 대개 이는 또한 기이한 일의 큰 것으로서 효성이 감응하여 이른 바의 마땅함인지라 수령이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고 후세 사람들이 그 유적을 우러러보게 된 것이다.

제목 건옹과애乾邕過哀는 건옹이 애훼함이 지나쳤다는 뜻이다. 왕숭은 중국 남북조 시대 후위後魏의 옹백雍伯이라는 곳에 산 사람이다. 위서魏書에 그 사적이 올라 있고 효행으로 알려져 양주梁州의 진남부 주부鎭南府主簿의 벼슬을 하였다. 새가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은, 어떤 새에게 포유동물의 젖이 있었을 수가 없으므로 다른 이적異跡의 와전일 것이다.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山두부집
대표 權五玄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겐 참새방앗간!'
100명 동시 예약 가능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1-1
전화 02) 954-1183 · 1184
HP) 010-8003-6996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 · 값 1,3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